

남구, 공립 작은도서관 ‘야간 개방’ 확대

월산4·방림1동 오후 9시까지
기존 2→4곳, 토요일 개방 5곳

광주 남구는 관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야간 운영을 확대 중인 가운데 추가로 공립 작은도서관 2곳의 야간 개방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월산4동 작은도서관과 방림1동 꽃마을 작은도서관이 지난 7일과 12일부터 야간 운영에 들어갔다.

당초 오후 5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확대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자원봉



시민들이 광주 남구 월산4동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사가 등이 운영인력으로 근무한다.

이로써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18곳 가운데 야간에 문을 여는 작은도서관은 양림동 역사문화를 비롯해 봉선2동, 방림1동 꽃마을, 월산4동 작은도서관까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야간 개방 확대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찾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5곳에서는 주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주말에 개방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양림동 역사문화와 양지, 진월, 방젯골 어린

이,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이다.

해당 작은도서관의 주말 운영시간은 위탁기관 자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각기 다른데,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남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직장인 및 야간 이용자를 위해 구립 도서관인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의 야간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4시간 늘려 개방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공립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비 기자** jub.kang@jnilbo.com

광산구, 본격 폭염 대응체계

살수차 운행·온열질환 신속 대응

광주 광산구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3일부터 도심 내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하남동, 운남동, 신창동, 첨단동 등 주요도로 21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살수차를 통해 도로를 식힐 예정이다.

주민수해도가 높은 횡단보도 그늘막은

지난 5월부터 158개소를 운영 중으로 추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21개 동과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그늘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송정역과 쌍암근린공원에 설치한 쿨링포그는 14일부터 가동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양산 500개소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배부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388개소의 냉방요금을 7월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내 축산농가에 환풍기 설치를 지

원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야외 노동 현장의 폭염 피해도 적극 예방한다.

온열질환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9개 병원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물놀이객의 인명사고 예방과 관련 해선 임곡교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13개소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더운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현기증이나 두통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꼭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폭염발생 시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행복한 아빠 교실 운영

4~7세 영유아 자녀 둔 아빠 대상
내달 1일까지... 공동육아 문화 정착

광주 동구는 4~7세 영유아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2023년 아빠는 육아왕! 행복한 아빠 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2년 차를 맞은 ‘아빠는 육아왕! 행복한 아빠 교실’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12년간 아빠들의 꾸준한 관심과 호응 속에 매

년 사업 종료 시마다 참여자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행사는 이달부터 내달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토요일 오전·오후 각 15가구씩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술 △독후 △체육 등 아빠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빠 중심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육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북구, 상반기 음식 강좌 수강생 수료작품 전시회 개최

16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북구는 16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 기획전실에서 음식 강좌 수강생 수료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배우고 익힌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강좌 수료를 기념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우수한 남도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자 매년 상반기에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음식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남도향토음식 5개 과정에서는 수료생 77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강생과 강사 등 80여 명이 참여해 고추김치, 오색꽃송편, 애호

박찌개 등 남도전통음식 90여 점과 육전, 오리탕, 떡갈비, 무등산비빔밥 등 광주대표음식 40여 점을 직접 만들어 선보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매년 음식 강좌를 개설해 남도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을 기획전시회를 통해 남도의 맛, 멋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서구,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최대 200만원

광주 서구가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부스 및 장치 임차료를 지원한다.

서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우수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중 서구에서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동일 전시회 참여로 다른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에서 지

원받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제외한다.

모집기간은 예산(1000만원) 소진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구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 및 참가 추진계획서 등을 구비해 서구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2-350-4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인 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